

# 말대답 노래에 나타난 대결의 양상과 의미

-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의 비교를 통해

서영숙\*

<차 례>

1. 머리말
2. 현실적 지위의 역전
3. 고정적 성 관념의 파괴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 중 말대답이 서사 전개的主要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노래를 대상으로 대결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 모두 말대답을 통해 현실적 지위를 역전시킨다. 영미 발라드에서는 사회적 지위의 역전이, 한국 서사민요에서는 가족적 위계의 역전이 나타난다. 특히 영미 발라드 <The False Knight upon the Road(길 위의 가짜 기사)>, <King John and the Bishop(존 왕과 주교)>에서 초현실적, 정치적, 종교적 권력자보다는 현실적이고 미천한 자의 승리를, 한국 서사민요 <며느리 말대꾸 노래>, <꿩타령>에서 시집식구보다 며느리, 남편보다 아내의 승리를 그려낸 것에서 두 지역의 향유층 모두 기존의 사회적, 가족적 권위에 대한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 모두 말대답을 통해 고정적 성 관념을

\* 한남대학교

파괴한다. 한국 서사민요에서는 처녀와 외간 남자 사이에서, 영미 발라드에서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말대답이 이루어지며, 말대답의 주체가 남자가 아닌 처녀, 남편이 아닌 아내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 서사민요 <찢어진 쾌자노래>와 영미 발라드 <Our Goodman(우리의 선한 남자)>에서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당당한 처녀와 아내의 재치 있는 말대답을 통해 고정적 성관념을 파괴함으로써 성적 일탈의 재미와 풍자를 함께 누렸다.

이들 노래는 기존 사회의 통념과 권위를 뒤집는 전복과 저항의 메시지로써, 두 사회의 민중들은 사회 속에서 유무형으로 가해지는 억압을 말대답으로 된 노래로 부름으로써 그로부터의 일탈과 자유를 꿈꾸었다.

**핵심어 :** 한국 서사민요, 영미 발라드, 말대답, 현실적 지위, 성 관념, 여성, 가족 관계, <The False Knight upon the Road(길 위의 가짜 기사)>, <King John and the Bishop(존 왕과 주교)>, <며느리 말대꾸 노래>, <펄타령>, <찢어진 쾌자노래>, <Our Goodman(우리의 선한 남자)>

## 1. 머리말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는 모두 이야기로 된 노래로서 주로 평민 여성들에 의해 창작 전승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sup>1)</sup> 그러나 한국과 영미 지역 평민 여성이 살아온 삶의 방식의 차이에 따라 두 갈래 노래는 같은 소재를 다루면서도 다른 의식과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두 갈래가 지니

1)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의 갈래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출판부, 1979 중보판, 51쪽에서 언급한 바 있다. 평민 여성문학으로서의 서사민요에 대해서는 조동일, 같은 책, 35-42쪽을, 발라드의 평민 여성문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한규만, 「포크벨러드와 여성」, 『신영어영문학』 12, 신영어영문학회, 1999, 7-10쪽 참조.

고 있는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 연구는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연구의 일환으로서 앞으로의 서사민요 연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의 하나이다.<sup>2)</sup>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는 모두 일정한 인물들의 대결에 의한 단편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그런데 두 갈래 노래 중에는 사건이 시간의 순차적 전개에 따라 길게 서술되기보다는 주인공과 상대인물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핵심 갈등을 드러내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로 상대인물이 갈등을 일으키는 언급을 하거나 질문을 제시하고, 주인공은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말대답의 주체이자 중심인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들 노래 속 사건의 핵심과 해결은 주인공이 말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 중 말대답이 사건 전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노래를 ‘말대답 노래’라 지칭하고,<sup>3)</sup> 이들 노래에 나타나는 대결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한다.

말대답 노래에서 주인공은 대부분 일상 속에서의 약자이고 상대인물은 강자로 나타난다. 이들 약자들이 강자인 상대인물과의 대결에서 말대답을

2)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 비교 연구의 선구적 업적으로는 피천득심명호, 「영미의 Folk Ballad와 한국 서사민요의 비교연구」, 『연구논총』 2, 서울대학교 교육회, 1971, 169-237쪽; 한규만, 「한국의 서사민요와 영미의 포크발라드에 나타난 주제의 비교분석」, 『울산대 연구논문집』 19, 울산대학교, 1988, 1-28쪽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본인에 의해 「한영 발라드에 나타난 ‘여성의 죽음’에 대한 인식 비교」, 『고시가연구』 31, 한국고시가문학회, 2013, 219-246쪽;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에 나타난 ‘아내’의 형상 비교」, 『한국민요학』 38, 한국민요학회, 2013, 105-128쪽 등으로 비교 고찰이 이어지고 있다.

3) ‘말대답 노래’는 ‘문답노래’나 ‘수수께끼 노래’와 일정 부분 겹치기도 하나, 또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어 별도의 이름이 필요하다. ‘문답노래’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말대답 노래’는 질문이 아닌 지시나 명령 등 평서적 언술도 포함된다. ‘수수께끼 노래’는 은유, 상징, 역설 등 상식을 뛰어넘는 비일상적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말대답 노래’는 반드시 수수께끼적 표현이 아닌 일상적 표현도 포함된다. ‘수수께끼 노래’에 대해서는 서영숙,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의 수수께끼 노래 비교-구애의 노래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52, 비교민속학회, 2013, 203-224쪽에서 고찰하였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상에서의 우위가 뒤바뀌고 승리가 결정된다. 일상 속에서의 약자가 노래 속에는 강자가 되고, 일상 속에서의 강자가 노래 속에서는 약자가 되는 전복과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말대답 노래의 공통적 양상이다. 그러므로 말대답 노래 속에서의 대결이 어떤 인물들 간에 이루어지는지를 살피는 것은 노래와는 다른 향유층의 일상적 현실과 의식을 추론케 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에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 중 말대답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노래들을 추출하여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 - 현실적 지위의 역전, 고정적 성 관념의 파괴 - 로 나누어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에 나타나는 향유층의 삶과 의식을 비교 고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대상 자료는 한국 서사민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민요대전』 소재 자료 및 기타 지역 연구자들이 조사한 자료집을, 영미 발라드의 경우는 F. J. Child의 발라드 선집 소재 자료를 택하기로 한다.<sup>4)</sup>

## 2. 현실적 지위의 역전

말대답은 노래 속에서 주인공과 상대인물과의 수준 높은 경쟁과 싸움의 도구로서, 권력의 우열 관계를 가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 유형의

4) 『한국구비문학대계』(총8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한국민요대전』(총9권), (주)문화방송, 1993~1996; 김영돈, 『제주도민요 연구(상)』, 민속원, 2002; 『울산울주지방민요자료집』,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0; *The English and Scottish Popular Ballad*, ed by F. J. Child,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65(First published in 1884-1898) 소재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F. J. Child의 자료집은 발라드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서, 영미 발라드의 대표적 유형 305개(각편까지 포함하면 1,000여편) 유형이 수록돼 있다. 인용 시에는 Child #번호로 제시한다. 번호 다음의 알파벳은 Child가 추가로 제시한 각편 기호이다.

자료 원문은 <http://www.sacred-texts.com/neu/eng/child>에 수록돼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노래들에서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을 맞힘으로써 현실적 지위를 역전시키거나,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의 권위를 전복시킨다. 영미 발라드 중 Child #3 <The False Knight upon the Road(길 위의 가짜 기사)>에서는 악마와 어린 소년 간에, Child #45 <King John and the Bishop(존 왕과 주교)>에서는 왕과 주교 간에, 한국 서사민요 <며느리 말대꾸 노래>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꿩타령>에서는 남편과 아내 간에 말대답을 통한 대결이 이루어진다.

(앞부분 생략) 'What's aucht they sheep?' 저 양들은 누가 갖고 있지?  
 'They are mine and my mither's.' 나와 나의 어머니 것이예요. //  
 'How monie o them are min?' 그들 중 몇 마리나 내 것이니?  
 'A' they that hae blue tails.' 푸른 꼬리를 가지고 있는 한 마리오. //  
 'I wiss ye were on yon tree:' 나는 네가 저 나무 위에 있길 바래.  
 'And a gude ladder under me.' 좋은 사다리가 내 아래에 있어요. //  
 'And the ladder for to break:' 사다리가 부러진다면.  
 'And you for to fa down.' 그러면 당신이 떨어질 거예요. //  
 'I wiss ye were in yon sie:' 나는 네가 저 바닷속에 있길 바래.  
 'And a gude bottom under me.' 좋은 발판이 내 아래에 있어요. //  
 'And the bottom for to break:' 그 발판이 무너진다면.  
 'And ye to be drowned.' 그러면 당신이 물에 빠지겠죠.<sup>5)</sup>

Child #3 <The False Knight upon the Road(길 위의 가짜 기사)>이다. 이 유형에서는 가짜 기사(악마)와 어린 소년의 질문과 대답이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된다. 악마가 자신의 양이 몇 마리냐고 묻자, 소년은 푸른 꼬리를 가진 것만 그의 것이라고 한다. 푸른 꼬리를 가진 양이 있을 리 없으니 악마의 양은 한 마리도 없다는 말이 된다. 악마가 소년이 나무 위에, 바다 밑에 있기를 바란다는 말은 소년을 죽음의 세계로 데려

5) 각 연마다 첫 행에는 “Quo the fause knicht upon the road(길 위에서 가짜 기사가 물었네.)”, 다음 행에는 “Quo the wee boy, and still he stude(아주 작은 소년이 멈춰서서 말했네.)”라는 후렴이 반복되므로, 이는 생략하고 인용한다. 번역은 모두 본인이 직접 한 것이다.

가겠다는 위협이다. 그러나 소년은 자신이 내려올 사다리와 발 디딜 발판이 있다고 대응함으로써 악마의 위협을 간단하게 물리친다. 힘이 약한 소년이 초월적 능력을 지닌 악마를 수수께끼를 통해 간단히 물리침으로써 지혜를 통해 소년과 악마의 우위가 역전된다. 현실의 소년이 초현실의 악마보다 우위에 있다는 믿음은 현실 세계를 긍정하는 민중적 사고방식에서 온다. 또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노래 속 말대답을 통해 죽음에 대한 공포나 위협에 맞설 당당한 용기를 기를 수 있었을 것이다.

Child #45 <King John and the Bishop(존 왕과 주교)>는 왕과 주교 사이의 보이지 않는 권력 서열 다툼을 보여준다. 사악한 왕이 주교에게 문제를 제시한다. 이를 맞히면 봉급을 올려주겠지만 맞히지 못하면 목숨을 가져간다는 조건이다. 삼손의 수수께끼와 같은 일종의 ‘목숨 건 수수께끼(neck riddle)’<sup>6)</sup>이다.

(앞부분 생략)‘If thou dost not answer me questions three,  
당신이 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Thy head shall be taken from thy body.

당신 머리는 당신 몸에서 떨어질 거요. //

‘When I am set so high on my steed,

내가 말 위에 높이 앉아있을 때

With my crown of gold upon my head,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서

Amongst all my nobility, with joy and much mirth,

품위와, 기쁨과, 환희 속에 있을 때

Thou must tell me to one penny what I am worth.

내 가치가 얼마인지 말하라. //

‘And the next question you must not flout,

다음 질문도 틀려서는 안된다.

How long I shall be riding the world about;

얼마동안 나는 세상을 돌아다닐까?

6) J. Barre Toelkin, “Riddles Wisely Expounded”, *Western Folklore*, Vol.25, No.1, Western States Folklore Society, Jan. 1966, p. 1.

And the third question thou must not shrink,  
 셋째 질문도 움츠려서는 안된다.  
 But tell to me truly what I do think.’  
내가 무얼 생각하는지 맞혀라 // (중략)  
 ‘For thirty pence our Saviour was sold,  
 우리 구세주는 30펜스에 팔렸지요.  
 Amongst the false Jews, as you have been told,  
 가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알다시피  
 And nine and twenty’s the worth of thee,  
 그러니 당신은 29펜스 가치가 있어요.  
 For I think thou are one penny worser than he.’  
 내 생각에, 당신은 그보다 1펜스 적으니까요. (이하생략)

왕은 주교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자신의 가치가 얼마이며, 자신이 얼마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답하라는 것이다. 3일 동안 대답을 찾아야 하는 주교의 고민을 알아차린 양치기가 대신 변장을 하고, 왕에게 간다. 양치기의 대답은 왕의 가치는 예수가 팔린 30센트보다 1센트 적은 29센트이며, 왕은 해뜨기 시작해 다음날 해 뜰 때까지 다닐 것이니 24시간 돌아다니며, 왕은 자신을 주교로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양치기라는 것이다. 왕은 양치기의 지혜에 탄복해 양치기를 새 주교로 임명하며, 전 주교에게 자신의 사과를 전해달라고 한다. 양치기 지혜 덕분에 주교도 목숨을 건진다.

왕과 주교의 겨루기에서 승자는 왕도 주교도 아닌 양치기이다. 천한 신분인 양치기는 권력의 최고부에 있는 두 사람을 누르고, 새로운 지위를 얻는다. 양치기는 목숨을 건 두 최고 권력자의 어리석은 싸움을 슬기로운 대답을 통해 조롱한다. 왕의 가치를 29센트라 매기는 것은 예수보다 1센트 낮은 가치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높이는 듯하면서도 속으로는 한없이 낮은 가치로 추락시키는 풍자이다. 말대답의 참된 매력은 이러한 겉뜻과 속뜻의 차이에 있으며, 이로 인한 지위와 가치의 역전에 있다.

한국 서사민요에서 지위의 역전은 주로 시집식구와 며느리, 남편과 아

내 사이에서 일어난다. 권력의 다툼에서 나타나는 지위의 역전은 주로 설화의 뒤편이다. 서사민요 중 시집식구와 며느리의 역전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는 <며느리 말대꾸 노래>, <양동가마 노래>, <병어리 삼년(뽕노래) 노래>, <방아깨비 노래><sup>7)</sup> 등을 들 수 있고, 남편과 아내의 역전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뽕타령> 등을 들 수 있다. 제주도에서 채록된 <며느리 말대꾸 노래>를 살펴보자.

메누리야 일어나 나라  
 너 또꾸망에 헤 비추웁저  
 아이고 어멍아 거 무신 말  
 하락산 고고리랑 어디 비여 똥  
 나 또꾸망에 헤 비추웁수광  
 아이고 이년아 혼 말만 짙여 도라  
 이제 나 나이  
 물보리 열 말씩은  
 혼 말만 짙어 두엿  
 동산이물에나 가 오라  
 산지물이랑 어디래 비여 똥  
 동산이물에 갑니깡(이하 생략)<sup>8)</sup>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며느리 “똥구멍에 해가 비친다”고 한다. 며느리는 “한라산 꼭대기는 어디 비여두고 내 똥구멍

7) <병어리 삼년(뽕노래)>, <방아깨비 노래> 등은 겉으로는 시집식구를 추켜세우는 듯하지만, 안으로는 이들을 뽕이나 방아깨비 같은 존재로 격하시키는 조롱과 풍자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 사회의 <시집살이 노래>가 누구나 쉽게 이해하기 힘든, 수수께끼와 같은 노래들로 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가족 관계의 소통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래는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억압적 상황을 놀이와 웃음으로 풀어내는 수수께끼 놀이일 수 있었다. 노래를 통해 놀이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었기에 죽음과 같은 삶을 치유하고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영숙, 「시집살이에 대한 알레고리: <뽕노래>와 <방아깨비노래> 비교」, 『한국민요학』 31, 한국민요학회, 2011, 47-76쪽 참조.

8) <땃돌방아노래>, 홍성숙(여 50), 대정읍 영악리,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상)』, 478쪽.

에 해가 비치냐”고 반문한다. 며느리의 말대꾸를 드도 제발 “한 말만 저 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다시 “내 나이로 열 말은 짙지 어떻게 한 말만 짙느냐”고 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비유적 어법을 못 알아들은 척하고 직설법으로 받아치며, ‘한 말만 지다’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열 말도 더 짙다’로 대꾸한다. 며느리는 말의 애매성과 중의성을 이용해 훌륭한 말대답 놀이를 하고 있다. 상대방의 행동을 불만으로 꾸짖는 시어머니와 이 불만을 놀이로 되받는 며느리의 싸움은 그러므로 며느리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우열이 노래 속에서 역전된다.

이러한 역전은 장끼와 까투리의 해몽으로 인한 다툼을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예조의 꿈은 현실에 대한 은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일종의 수수께끼이며, 해몽은 수수께끼의 답을 유추해내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꿩타령>에서 까투리의 꿈을 놓고, 아내 까투리는 남편이 죽을 꿈이라고 하고, 남편 장끼는 자신이 대장이 될 꿈이라며 정반대로 해석한다.

까토리 하는말이 그난그렇다 하는니와  
어제밤 첫잠들어 꿈을꾸니 대불길하 하온지라  
상금들이 무색가마 자네머리 범벅시고  
만경장과 깊은물에 아조풍덩 빠져비니  
자네죽을 꿈몽이라 제발그콩 먹지마소  
까토리 하는말이 그꿈은 대명이다  
대명이 충언하면 구한병천 하오실 때  
이내몸 대장되고 머리우에 투구시고  
압록강 건너가서 중원을 평적하고  
성천대장되을 꿈이로다 그런꿈만 많이꾸어라(이하 생략)<sup>9)</sup>

이 각편에서 까투리가 꾸는 꿈인 ‘머리에 범벅을 쓰고 깊은 물에 빠지는

9) <까토리타령> 1, 이방두(남 70), 대북리 대북, 『울산울주지방민요자료집』, 741~745쪽.

것'은 꿩이 요리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꿩의 살에 밀가루나 양념 범벅을 씌워 끓는 물에 삶는 과정을 말한다. 까투리는 이를 장끼가 죽을 꿈으로 풀어내고, 장끼는 투구를 쓰고 물을 건너 중원을 평정할 장수가 될 꿈이라 풀어낸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여자가 남편의 앞길을 막아 재수가 없다는 폭언을 하던 장끼는 결국 아내의 말대로 죽고 만다. 꿈으로 남편의 미래를 내다보고, 수수께끼와 같은 꿈의 뜻을 정확하게 풀어낸 아내는 결국 죽은 남편을 잊고 새 남편을 맞아들임으로써 당시로는 매우 새로운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남편과 아내의 주종 관계를 평등의 관계로 또는 그 관계의 역전을 꿈 풀이에 대한 말대답을 통해 꿈꾼다.

### 3. 고정적 성 관념의 파괴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에는 흔치는 않지만 이미 남편이나 아내를 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나누는 이야기를 다룬 노래들이 있다. 이들 노래에는 외도 사실을 감추거나 발각된 현장을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적인 말대답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말대답의 주체가 남자가 아닌 여자, 남편이 아닌 아내로 나타나고 있어, 고정적인 성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서사민요 중 <찢어진 쾌자노래>, 영미 발라드 중 <Our Goodman(우리의 선한 남자)>이 대표적이다.

<찢어진 쾌자노래>는 외간남자가 처녀 집을 뛰어넘자 옷이 찢어지자, 처녀가 남자의 아내에게 어떻게 변명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들이 주를 이룬다.<sup>10)</sup>

10) 본인은 이를 '외간남자-여자 관계 서사민요' 중 <외간남자의 옷이 찢기자 꿩매주는 여자> 유형으로 분석한 바 있다. 서영숙, 『한국 서사민요의 날실과 씨실: 우리 어머니들의 노래』, 도서출판 역락, 2009, 293-299쪽 참조.

서울이라 임금아들 천냥짜리 처녀두고  
 만질담을 뛰어넘다 미였구나 미였구나  
 군때물은 양피배자 치닷분이 무었구나  
우리본처 알고보면 이말대답 어이하리  
대장부라 사나그가 그말대답 못할손가  
서당앞에 석노남기 석노따라 무었다소  
그리해도 안듣거든  
서당앞에 베자낭기 베자따가 무었다소  
 그리해도 안듣길랑 내일아침 조상 끝에  
 소녀방에 또들오면 오삭가지 당사실로  
 은침댄침 금바늘로 본살같이 감춰줍세(뒷부분 생략)<sup>11)</sup>

이 노래에서 외간남자는 ‘서울이라 임금아들’로 나오고, 여자는 ‘천냥짜리 처녀’로 나온다. 각편에 따라서는 외간남자가 ‘토연(통인)’, 여자가 ‘좌수별감 딸딸애기’로 나오기도 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외간남자는 여자보다 지체가 높지만 아내가 있는 남자이며, 여자는 남자보다 지체가 낮지만 미모가 뛰어난 처녀이다. 유부남과 처녀 사이에 벌어지는 부적절한 관계는 몇몇한 일이 아니기에, 남몰래 담을 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남자의 바지가 찢어진다. “우리본처 알고보면 이말대답 어이하리” 하고 걱정하는 남자에게 처녀는 “대장부라 사나이가 그말대답 못할손가”라고 나무라며, “서당앞에 석노남기 석노따다 무었다소.” 또는 “서당앞에 베자낭기 베자따다 무었다소”라고 변명하라고 한다. 이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처녀가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이고 고정적인 성 관념에서 기대하는 처녀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처녀가 제시한 말대답은 서당 앞에 있는 석류나무와 비자나무의 열매를 따다 찢어졌다고 하라는 것이다. 이는 거짓으로 둘러대라고 하면서도 비유적으로 보면 거짓이 아닌 말들이다. 남자가 늘 오가는 서당 근처에 처녀 집이 있을 테이니 ‘서당 앞에’이고, 석류나 비자와 같은 열매를 따는

11) <서울이라 임금아들>, 박정월(여, 1910-1991), 『한국민요대전』 전남 9-17.

것은 모두 여자의 성을 취한다는 것에 대한 은유이다. 석류와 비자는 모두 껍질을 벗기면 알이 드러나는 것으로, 일종의 여성 상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녀는 남자에게 거짓이 아닌 거짓말로 둘러대라고 하면서 위기를 모면케 하는 재치를 내보이고 있다. 이는 외도에 대한 남자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자신에게 오게 하기 위한 처녀의 욕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또한 비밀상적이다.

더욱이 만일 그래도 본처가 곧이듣지 않는다면, “오색가지 당사실로 / 은침대침 금바늘로 본살같이 감춰줍세.”라며 다시 한 번 들르라고 유혹까지 한다. 이러한 언술에는 외도의 부정성으로 인해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즐기는 양면적 태도가 내재돼 있다. 즉 일탈의 불안함과 즐거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말대답 속에 배어 있다. 이렇게 <찢어진 쾌자 노래>는 외간남자와 처녀 간의 부적절한 성 관계 속에서 외도 사실을 은폐하는 재치 있는 말대답을 통해 은밀한 성의 불안감과 즐거움을 함께 드러낸다. 이때 여자가 남자에게 말대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 남자가 주도적이고 여자가 순응적이던 고정적 성 관념을 파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노래의 경우 창작과 전승의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노래 속 인물들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상상적 일탈을 즐기는 이도 있을 터이고, 이에 대해 못마땅해 하며 경계하는 경우도 있을 터이다. 각편에 따라서는 “하늘길은 우리부모 고치길은 우리 아내 / 뭐라카연 대책하꼬 / 토인토인 김토인아 그말일러 안될소연 / 내 일밤에 새는밤에옥등산에 지름밝히 개화심지 불을밝히/ 물명주라 명주실로 허물없이 집어주렴 / 니가암만 잘하겠어 본댁같이 잘하겠어”<sup>12)</sup> 하며 마지막 부분에 남자가 처녀에게 편잔을 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바로 후자에 해당한다. 이는 남자의 말에 이 노래의 향유층 중 처녀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는 본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침투된 것이라 할 수

12) <좌수별감 말말애기>, 박남선(여·73), 옥성 1동 여수동, 『한국구비문학대계』 7-4 성주군 대가면 민요 220.

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향유층의 다양한 태도를 이끌어 내면서 창작과 전승의 더 큰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 서사민요 <찢어진 쾌자 노래>가 아내 있는 남자와 처녀의 관계를 그리고 있다면, 영미 발라드 중 Child #274 <Our Goodman(우리의 선한 남자)>은 반대로 남편 있는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그리고 있다.<sup>13)</sup> 두 경우 다 말대답의 주체가 여자이며, 그 여자들이 다 외도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고정적 성 관념을 파괴한다. 게다가 <Our Goodman(우리의 선한 남자)>에서는 여자가 남편에게 외도의 현상이 발각되고서도 이를 부인하는 말대답을 태연하게 하고 있어 대단히 파격적이다. Child #274 <Our Goodman(우리의 선한 남자)>를 예로 살펴보자.

HAME came our goodman, 우리의 선한 남자가 집에 왔네.

And hame came he, 그가 집에 왔네.

And then he saw a saddle-horse, 그때 그는 안장이 있는 말을 보았네.

Where nae horse should be. 거기엔 말이 있을 리 없다네./

‘What’s this now, goodwife? 지금 이게 뭐요? 선한 아내여.

What’s this I see? 내가 보고 있는 이게 뭐요?

How came this horse here, 이 말이 어떻게 여기 와 있지?

Without the leave o me?’ 내가 남겨놓지 않았는데.

‘A horse?’ quo she. 말이요? 그녀가 말하네.

‘Ay, a horse,’ quo he. 응, 말. 그가 말하네./

‘Shame fa your cuckold face, 수치스런 의심쟁이 얼굴

Ill mat ye see! 내가 보게 되나니!

’Tis naething but a broad sow, 이건 큰 암돼지에 불과해요.

My minnie sent to me.’ 내 어머니가 내게 보냈어요.

‘A broad sow?’ quo he. 큰 암돼지? 그가 말하네.

‘Ay, a sow,’ quo shee. 예, 암돼지. 그녀가 말하네./

‘Far hae I ridden, 내가 멀리 나가봤지만,

13) 서영숙,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에 나타난 ‘아내’의 형상 비교」, 『한국민요학』 38, 한국민요학회, 2013, 118-123쪽에서 이 작품을 ‘바람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대응’이란 측면에서 <훗사나타령>과 비교한 바 있다. 작품 해설 부분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아내의 ‘말대답’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And farrer hae I gane, 더 멀리 가봤지만  
But a saddle on a sow's back 등에 안장을 한 암돼지는  
I never saw nane. 난 전혀 본 적이 없네./ (중략)  
 'Poor blind body, 불쌍한 눈먼 남자,  
 And blinder mat ye be! 더 눈이 멀게 되다니!  
It's a new milking-maid, 그건 우유짜는 새 하녀예요.  
My mither sent to me. 내 어머니가 내게 보내준.  
 'A maid?' quo he. 하녀? 그가 말하네.  
 'Ay, a maid,' quo she. 예, 하녀. 그녀가 말하네./  
 'Far hae I ridden, 내가 멀리 가 봤지만,  
 And farer hae I gane, 더 멀리 가 봤지만.  
But lang-bearded maidens 긴 수염이 달린 하녀는,  
I saw never nane. 난 전혀 본 적이 없네.

이 노래에서 집에 돌아온 남편은 집에서 자신이 남겨놓지 않은 다른 남자의 물건들을 발견하고 아내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아내는 남편을 '의심쟁이(의처증을 지닌 남자)'로 몰아세우며 그 물건의 정체를 비슷한 형체의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답한다. 그때마다 남편은 자신이 멀리 다녀봤지만 그런 물건을 보지 못했다며 의아해 한다. 마당에서부터 집 안으로, 마지막엔 침실에까지 들어오면서 차례차례 남편과 아내의 문답이 계속된다. 남편은 '안장을 한 말 - 부츠 - 칼 - 가발 - 코트'를 발견하고 그게 왜 거기 있는지 물어보며, 아내는 그것들을 '돼지 - 물병 - 주걱 - 암탉 - 담요'라며 대응한다. '안장을 한 돼지, 은 굵이 달린 물병, 은 손잡이가 달린 주걱, 파우더를 뿌린 닭, 단추 달린 담요'를 보지 못 했다며 의아해하면서도 아내의 부정을 막지 못하는 남편의 어수룩함은 침대에 누운 남자를 발견하면서 막바지에 다다른다. 웬 남자가 침대에 있느냐는 남편의 물음에 아내는 '우유 짜는 새 하녀'라며 대답하며 오히려 남편을 "불쌍한 눈먼 남자, 눈이 더 멀다니!" 하며 장님으로 매도한다. 남편이 "긴 수염이 달린 하녀는, 난 전혀 본 적이 없네."라고 응수하지만, 아내의 기세를 누르지는 못한다.

이렇게 <Our Goodman(우리의 선한 남자)>은 아내의 외도를 보고서도 막지 못하는 어리숙한 남편과 남편이 본 것을 영뚱한 다른 것으로 바꿔 말함으로써 잘못을 회피하는 영악한 아내의 대결로 이루어져 있다. 아내의 말대답은 ‘안장을 한 돼지, 은 굵이 달린 물병, 파우더를 뿌린 닭, 단추 달린 담요’ 등 있을 수 없는 기발한 연상을 불리움으로써 웃음을 자아낸다. 또한 외도를 하면서도 당당한 아내와 이를 어찌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 고정적 성 관념을 파괴한다. 이때 노래의 향유층은 아내의 재치 있는 대답에 폭소를 터뜨리며 그녀의 일탈을 함께 즐기기도 하고,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과 당당한 태도를 나무라며 경계하기도 한다. 이는 희극적 발라드가 창작 전승되며 나타나는 공통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sup>14)</sup>

####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 중 말대답이 서사 전개的主要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노래를 대상으로 대결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 보았다. 말대답은 노래 속에서 강자와 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말대답을 통해 현실 속의 강자가 약자가 되거나, 현실 속의 고정 관념이 파괴된다. 이를 현실적 지위의 역전과 고정적 성 관념의 파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 모두 말대답을 통해 현실적 지위를 역전시킨다. 특히 영미 발라드에서는 사회적 지위의 역전이, 한국 서사민요에서는 가족적 위계의 역전이 나타난다. 영미 발라드 중 Child #3

14) 희극적 발라드의 특징에 대해서는 David Atkinson, “...the wit of a woman it comes in handy./At times in an hour os need’: Some Comic Ballads of Married Life”, *Western Folklore*, Vol.58, No.1, Western States Folklore Society, Winter 1999, pp. 57-84. 참조.

<The False Knight upon the Road(길 위의 가짜 기사)>에서는 악마와 어린 소년 간에, Child #45 <King John and the Bishop(존 왕과 주교)>에서는 왕과 주교 간에, 한국 서사민요 <며느리 말대꾸 노래>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꿩타령>에서는 남편과 아내 간에 말대답을 통한 대결이 이루어진다. 이때 영미 발라드의 향유층이 정치적, 종교적 권력자보다는 미천한 양치기의 승리를, 한국 서사민요의 향유층이 시집식구보다 며느리, 남편보다 아내의 승리를 그려낸 것에서 두 지역의 향유층 모두 기존 사회의 사회적, 가족적 권위에 대한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 모두 말대답을 통해 고정적 성 관념을 파괴한다. 이때 한국 서사민요에서는 처녀와 외간 남자 사이에서, 영미 발라드에서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말대답이 이루어지며, 말대답의 주체가 남자가 아닌 처녀, 남편이 아닌 아내로 나타난다. 한국 서사민요 중 <찢어진 쾌자노래>, 영미 발라드 중 Child #274 <Our Goodman(우리의 선한 남자)>이 대표적이다. 이들 노래에서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당당한 처녀와 아내의 재치 있는 말대답을 통해 고정적 성 관념을 파괴함으로써 성적 일탈의 재미와 풍자를 함께 누렸다.

이상에서 영미 발라드에서는 말대답이 악마와 소년, 왕과 주교와 같은 초현실적 존재와 현실적 존재,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 간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한국 서사민요에서는 시집식구와 며느리, 남편과 아내와 같은 가정 내 가족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영미와 한국 사회에서 발라드와 서사민요의 향유층이 중요하게 여기거나 억압을 받는 권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준다. 그러나 영미 발라드의 향유층이 말대답을 통해 악마, 왕, 주교와 같은 정치적, 종교적 권력자보다는 미천한 양치기의 승리를 그려내고, 한국 서사민요의 향유층이 시집식구보다 며느리, 남편보다 아내의 승리를 그려낸 것은 기존 사회의 통념과 권위를 뒤집는 전복과 저항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속에서 유·무형으로 가해지는 억압을 말대답 노래로 부름으로써 두 사회의

민중들은 그로부터의 일탈과 자유를 꿈꾸었던 것이다.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는 동서의 거리를 뛰어넘어서 유사한 발상과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사회 민중들은 모두 말대답을 통해 현실적 억압으로부터의 일탈과 자유를 꿈꾸었다. 이러한 의식은 모두 근대적 사유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두 지역의 문학이 중세 문학에서 근대 문학으로 이행하는 데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가 초석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적 가치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들 갈래에 대한 비교 연구는 매우 미진하다. 이 글이 이러한 미진함을 풀어나가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울산울주지방민요자료집』,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0.

『한국구비문학대계』(총8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한국민요대전』(총9권), (주)문화방송, 1993~1996.

*The English and Scottish Popular Ballads*(Five Volumes), ed. by Child, F. J.,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65. (First published in 1884-1898).

### <논저>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7.

김경섭, 「한국 수수께끼의 장르 정체성 및 소통 상황의 특성」, 『한국민속학』 36, 한국민속학회, 2002, 53-82쪽.

김경섭, 「수수께끼와 수수께끼담의 관련양상」, 『구비문학연구』 18, 2004, 471-512쪽.

김영돈, 『제주도민요 연구(상)』, 민속원, 2002.

김태곤 외, 『한국구비문학개론』, 민속원, 1995.

서영숙, 『한국 서사민요의 날실과 씨실: 우리 어머니들의 노래』, 도서출판 역락, 2009.

서영숙, 「시집살이에 대한 알레고리: <평노래>와 <방아깨비노래> 비교」, 『한국민요학』 31, 한국민요학회, 2011, 47-76쪽.

서영숙, 「한영 발라드에 나타난 ‘여성의 죽음’에 대한 인식 비교」, 『고시가연구』 31, 한국고시가문학회, 2013, 219-246쪽.

서영숙,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에 나타난 ‘아내’의 형상 비교」, 『한국민요학』 38, 한국민요학회, 2013, 105-128쪽.

서영숙, 「한국 서사민요와 영미 발라드의 수수께끼 노래 비교-구애의 노래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52, 비교민속학회, 2013, 203-224쪽.

윤용식·손종흠, 『구비문학개론』, 방송대 출판부, 1998.

이재선, 「수수께끼와 그 시학적 성격」, 『창작과 비평』 8(4), 1973.12. 998-1015쪽.

정상진·박경수, 『한국구비문학의 세계』, 세종출판사, 2004.

조동일, 『서사민요 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9 증보판.

피천득·심명호, 「영미의 Folk Ballad와 한국 서사민요의 비교연구」, 『연구논총』 2, 서울대학교 교육회, 1971, 169-237쪽.

한규만, 「한국의 서사민요와 영미의 포크밸러드에 나타난 주제의 비교 분석」, 『울산대 연구논문집』 19, 울산대학교, 1988, 1-28쪽.

한규만, 『영미 포크 밸러드의 주제연구: 인간과 사랑』,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5.

한규만, 「포크밸러드와 여성」, 『신영어영문학』 12, 신영어영문학회, 1999, 7-31쪽.

Atkinson, David, “...the wit of a woman it comes in handy,/At times in an hour os need’: Some Comic Ballads of Married Life”, *Western Folklore*, Vol.58, No.1, Western States Folklore Society, Winter 1999, pp. 57-84.

Edmunds, Susan, “The Riddle Ballad and the Riddle”, *Lore & Language*, Vol.5 No.2, 1986, pp. 35-46.

Georges, Robert A. and Dundes, Alan, “Toward a Structural Definition of the Riddle”,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76, No.300, American Folklore Society, Apr. - Jun. 1963, pp. 111-118.

Toelkin, J. Barre, “Riddles Wisely Expounded”, *Western Folklore*,

Vol.25, No.1, Western States Folklore Society, Jan. 1966,  
pp. 1-16.

<http://www.sacred-texts.com/neu/eng/child>

[http://en.wikipedia.org/wiki/Riddle\\_song](http://en.wikipedia.org/wiki/Riddle_song)

투고일 : 2014 1월 15일, 심사 : 2014년 1월 17일~2월 7일, 게재확정 : 2월 7일

<Abstract>

## Meaning and Competition Aspects in Back Talk Songs - Through Comparison of Korean Narrative Songs and Anglo-American Ballads

Suh, Young-sook

This paper investigated the meaning and the competition aspects in the back talk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Korean narrative songs and the Anglo-American ballads. I searched them through dividing those songs into two categories - the reversion to the realistic status, The destruction of the static sex percep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reversion to the realistic status

The Korean narrative songs and the Anglo-American ballads express the reversion to the realistic status by the back talks. There are Child #3 <The False Knight upon the Road>, Child #45 <King John and the Bishop> of the Anglo-American ballads, <Daughter-in-law's balk talk song>, <Pheasant Song> of the Korean narrative songs in this category. While the conflict between the super natural being and the actual being or the political power and the religious power are performed in the Anglo-American ballads, the conflict between the husband's family and a daughter-in-law or the husband and wife are described in the Korean narrative songs. However, the fact that winners are the weak people such as the shepherd, the daughter-in-law, and the wife show the consciousness of resistance against the social authorities in the east and

the west world commonly.

2) The destruction of the static sex perception

The Korean narrative songs and the Anglo-American ballads express the reversion to the realistic status by the back talks. There are Child #274 <Our Goodman> of the Anglo-American ballads, <Cloths torn off> of the Korean narrative songs in this category. While the competition between the wife and the husband is performed in the Anglo-American ballads, the competition between a maiden and a man is described in the Korean narrative songs. However, the fact that winners are women show the consciousness of resistance against the static sex perception in the east and the west world commonly.

The study of Korean narrative songs, moreover,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narrative songs and Anglo-American ballads have been not performed sufficiently. I wish that this study would be the step-stone of the expansion of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 narrative songs and the Anglo-American ballads.

**Key words** : Korean narrative song, Anglo-American ballad, Back Talk, Realistic status, Sex perception, Women, Family Relationship, <The False Knight upon the Road>, <King John and the Bishop>, <Daughter-in-law's Back Talk Song(며느리 말대꾸 노래)>, <Pheasant Song(꿩타령)>, <Cloths torn off(찢어진 쾌자노래)>, <Our Goodman>